

大巡 陰陽合德의 現代的 意義

-지구촌 우주시대 中心으로-

金永斗*

目 次

- | | |
|-------------------|----------------------|
| 1. 오늘날 現況과 문제의 所在 | 5. 불교 不二법문과 至氣주의 과학성 |
| 2. 우주시공간리와 道·佛·儒 | 6. 파사현정과 신기원적 창조 |
| 3. 기독교와의 관계와 神明주의 | 7. 결어 |
| 4. 인도주의와 현실 中庸性 | |

1. 오늘날 現況과 문제의 所在

1) 과거 史와의 관계

대순 음양합덕 문제는 有史 이래 세계史와 그 음양관계에 관한 것으로 오늘날에서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리적 구조관계인 것이다. 지구촌 우주시대가 昨今이 아니고 지구 자전(自轉) 무시(無始)이래에 속하여 일출동방(日出東方)인 동양이 봄, 여름, 일몰서방(日沒西方)인 서양이 가을, 겨울이 되는 음양 좌표가 된 것이다. 그 역사가 상고(上古)이래로 봄, 여름인 양(陽)의 동양문물이 중아(中亞)를 거쳐 가을, 겨울의 추풍낙엽적 결실로 겨울의 수장(收藏)이 아닌 서력(西力)동침인 세계사원환운동을 한 것이다.

* 고려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그것이 19세기 중엽에 한반도에 이르는 세계사 원환운동 매듭을 지은 것이었다. 이에서 동지(冬至)가 되어 명춘(明春)이 기약되는 원환운동임을 두고 증산 대순사상이 등장 하였다.

문제는 서방 가을 결실인 근대화 민주주의가 겨울의 수장이 아니고 그들 유사래(有史來)의 정복주의인 신인(神人)합치로 식민제국주의적 정복달림이 된데 있다. 물론 그나름 근대화 민주주의 擴散효과는 한것이지만 그 반면의 엄청난 역효과 면도 따랐었다.

증산 대순사상은 바로 거기에 문제점을 겨누어 명춘(明春) 봄의 만물 소생일 신기원적 해원상생 기틀로 천지공사를 한 것이다.

세계사에 대한 그분의 음양합덕 원리와 관계 相을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2) 오늘날의 現況과 문제의 소재

몇 10년전만 하여도 꿈에도 상상치 못한 일이 쏟아지게 나타나 달 나라는 이미 다녀왔고, 화성·목성에도 접근한 등 우주공간에 수여개의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있다. 우주 통신에 우주정거장이라는 것도 운위되고 있는 등, T.V,라디오를 통해서는 지구촌 방방곡곡의 사실들을 앗은 자리에서 원색 그대로 보고 듣기도 상거래·일상생활도 하는 것이다.

동양의 낮(晝)이 서양의 밤이고 서양의 낮이 동양의 밤이 되어, 우리는 시계 바늘 조정으로 동서의 하루 이틀을 축도(縮度)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 창밖 山川초목이 나쪽으로 달려와서는 스쳐간다고 착각하는가 하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의 건너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쳐 졸고만 있다가 어느사이에 미국에 왔구나라고 감탄하지 않을 자도 드물 것이다. 그 모두가 한시바에 목적지에 가고파하는 의욕(意慾)에서 착각하는 것이 된다.

그런가 하면 남녀가 구별되기 어려운 용모, 체국에 두발, 의복 혼선인 남장미녀와 녀장미남을 자랑하더니 거리를 확보하는 범람이기도 한 것이다. 하는 일도 그러하여 남자가 부역일을 하고 여자가 밖의 일을 하는 것이 예사처럼 되었다. 형편따라서 얼마든지 그럴수 있는 일이고 또 적재적소(適材

適所)라고도 할수 있다. 하기가 여성이 국왕이 되고 수상, 장관, 회사사장도 되는 등, 국가·사회 경제의 추기 역할을 하는 일이 오늘날에서는 그다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되었다. 근대기 영국에서는 여성이 국왕이 되어 국운을 흥완케한 예가 비일비재하였다. 보다 앞서 옛적에는 남존여비, 동양의 한국에 선덕여왕이 장군 김유신 보필로 3국통일 위업 기틀을 닦기도 하였다. 근대기 프랑스에서는 일개소녀(少女) 「잔달」이 영국침입군을 격퇴하여 조국을 구제하였는가 하면 20세기 3·1운동에서는 소녀 「유관순」이 솔선수범으로 일제(日帝)를 물리친 진두지휘를 하였었다. 여성 1이 남성 百·千·萬을 더구나 음양합덕으로 이끈 위대임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음이 양동(陽動)하고 양이 음동하는 비슷한 현상에서 엄청난 충격갈등이 연출되어 세계사를 불안케하고 있다.

3) 노사 분규와 그 음양 전도(轉倒) 충격

자본금이 있어 원료와 생산기계를 사들이어 상품생산을 능동적으로 창업한 기업자본가가 아무래도 양(陽)이 된다. 이에 비해 수동적으로 고용되어 원료와 기계를 움직여 상품생산을 직접으로 하는 노동자 입장은 아무리 노동이 고(苦)되고 지속적이라 할지라도 음(陰)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양동(陽動)하고 자본가가 음동(陰動)하여 「임금을 올리라」, 「그럴수 없다」는 욕심각심이 된 끝에 노동자의 총파업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한 연쇄파동이 타기업에서도 펼쳐져 장기化하는 등 국민으로서는 「물가고(高)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노자간의 원래 약속인 서로가 쉼이 되고 국민을 충요로히 잘 살도록 하자는 약속을 서로가 어기어 풍지 박산시키는 것이 된다. 나름나름 이유가 있어 多食口에 남 부럽잖게 살아야 겠다는 노동자의 평등권 주장대 그렇게 해주마 조금만 기다리라는 대결이 장기화될수도 있다. 오늘날이 국제 자본, 노동시대가 되어 거대한 자본과 값싼노동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국일수록 그 틈바귀에 끼인 갈수록의 곤경이 된다. 어찌 그 뿐만이라.

세계관·인생관이 확정된 이미 기성전통관계이기도 하여 산업 혁명 모국

인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國富論」에서 「神의 豫定調和」說을 내세웠다. 이미 노사불균등이 내다보인 것이지만 神의 자비로 調和되기 마련인 豫定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산업혁명인 기계력 생산이 우수한 상품, 혼수같은 쓰라짐을 두고 神의 자비에 의한 것이라고 확연한데서 기초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같은 영국인 「번삼」은 기업자본가의 권리 자유를 간성하지 말라는 맹활동이 이어졌는가하면 1세기후인 19세기 中葉에는 「칼, 맑스」의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인 공산주의 혁명주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원시자연, 봉건제, 자본주의 3단계를 거쳐 제4의 공산단계에서 물질생산력이 최고대가 될 필연이자 당연이라는 유물사관 세계관, 인생관이었다.

그 나름 神의 자비觀도 깃들여 물질생산 최고대 과학성이라는 유물사관으로 공산혁명이 기필코 성공할 것이라는 공산주의 다짐이 된 것이다.

기업자본가들이 노동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수탈하는 폭군이므로 타도해야한다고 자본가들이 神의 자비로 豫定 조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나름의 속임수 이므로 거기에 속지말라는 것이었다. 보다 절대다수자인 노동프로레타리아의 절대이익을 거두어야 한다는 그나름 神의 자비깃든 유물사관 과학주의이기도 한 것으로 그 「剩餘價値」라는 것이 기계 생산 가치와 노동자의 육체노동가치 한계를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인지 알수없다. 자본가로서는 기계력 생산 절대량을 두고 기업가가 사들인 자본력 때문이라고 그들 수익방대를 정당시 할지도 모른다. 또 노동자 육체노동 비가 아닌 밤·낮 잠을 제대로 자들 못하는 정신 노동이라 할 것이다.

아무튼 노자(勞資)문제는 神·인과 노자 음양 — (정신 양·육체 음) 나름 나름 과학주의 혼선착잡 불가양립적 대결 투쟁인등 그 모두가 神의 자비와 인간 탐욕 혼선 엇갈림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총체적 엇갈림인 것이다. 협동·분열·대결 走馬燈같은 연쇄유회환상인등 이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전후세계 오늘날에서도 크나큰 초점 문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2. 우주시공진리와 道 · 佛 · 儒

대순사상은 上述것을 겁액(劫厄)에 쌓인 인간세계상이라고 그 겁액을 벗기어 해원상생케하는 천지공사로 5만년 선경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노자(老子) 도교의 『포태』, 불교의 『양생』, 유교의 『범절, 관왕』으로 틀을 잡아 그런 나름 범도수 조정으로 후천개벽을 했다는 것이다.

그분 증산은 그것을 처음서부터 지구촌, 우주시대임을 직시하여 거기에 맞아드러가는 진리 조정으로 세계사장래를 포태시키고 양생케 하여서는 成人범절 관왕이게끔 도교 · 불교 · 유교로 배분하였다. 즉 「道生 1, 1 생 2, 2 생3, 3생만물, 만물 沖氣而和」(노자 도덕경)로 세계사 장래를 포태시켜 불교 양생으로 육성하고 유교의 질서(범절) 활동(관왕)으로 이끄는 천지공사를 한 것이다. 포태는 無로부터 有가 발생하여 有無 음양합덕으로 변증법적 종합해결이 되어 만물이 氣에서 沖하면서도 실은 和가 된다는 자연 理氣로 천지공사한 증산의 구도(構圖)인 것이다.

이것이 세계사를 「原始返本」케 하여 탐욕없는 無로부터 有의 1을 발생시켜(太極) 음양 兩儀이게끔 하여서는 3의 음양합덕으로 변증법적 종합해결로 상호교섭하는 氣의 沖이면서도 실은 和가 되는 음양합덕 완성 美이게끔하는 것이 된다. 자연의 일절만상 발생, 발전이 그러함을 증산이 재다짐하여 앞으로의 해원상생 신기원적 창조를 한것이다.

증산은 그러한 것을 불교의 양생에 의탁하였다. 즉 불교의 자비(慈悲)진리에 의부(依附)시킨 양생인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바로 해원상생진리 묶인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서로 자비하는데서만 해원상생이 되는 진리가 트이고 실천도 되는 만사해결이 되겠기 때문이다.

증산은 그것을 成年의 왕성한 질서(범절)유지와 활동으로 이끄는 실천이 게끔 하였다. 이것 없이는 더구나 원한에 사무친 겁액의 인간세계를 자바로 이끌 아무런 실제 바탕과 그럴수 있는 절차도 없는 헛된 메아리 無力化이겠기 때문이다.

증산은 道 · 佛 · 儒의 원리를 거듭거듭 강조하였다.(玄武經)

3. 기독교와의 관계와 神明주의

그런데 증산 당시 만하여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지 오래일뿐더러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한 증산사상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다.

그분은 첫째로 기독교 1神이 他神을 배격한 獨善이라 하여 기독교 聖書와도 함께 불살아 버렸다.(전경) 그러나 西有大聖人이라 하여 예수를 指稱한 것 같아, 예수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며 진리」라 한 것이 道·佛·儒에 通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도 증산 해원상생에 통하는 바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一神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 배격한 것 같다. 첫째로 神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모순당책을 발견한 것이다.

神의 말대로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 남녀 아담, 헤워는 神의 모습과 호흡 불어넣음으로까지 창조하여 만물을 지배하라 하였고, 자손만대의 번식과 복락 무궁일 것을 약속도 하였다.(成約) 그럼에도 불구하고 戒命인 「금단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原罪」 탓으로 에덴 동원으로부터 추방하여 죽음과 고난길을 선포한 것은 神의 자가모순 당책이 아닐수 없음을 발견한 것이다. 1說에 의하면 神이 아담·헤워를 試鍊했다지만 이는 神자신에 대한 시련이 아닐수 없다. 아무튼 先何心, 後何心격인 창조, 축복 原罪, 추방 저주인 것으로 증산은 당대의 서양세계와 세계전망이 그러한 기독교 1神의 자가모순 당책에 근원되는 더구나 만물창조 지배하라는 관계임을 간파한 것이다. 즉 해원상생은커녕 갈수록 원한 사무침이 될 가능성을 天下大巡서부터 갈파한 것이다. 2차대전을 豫見하기도 한 것이다.

증산은 기독교 1神을 神意주의가 아닌 神明主義로 止揚 포섭하여 기독교 세계를 재 개편 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이것이 노자(老子) 도덕경이 말한 「만물·충기 이 和, 실천인 것으로 그분은 이를 우주시공 온갖 神明들을 司 命하고 자진 봉사제도 한등 雨順風和와 寒暑조절로 民生을 구제하고 위국을 모면케도 하였다. 즉 기독교 1神을 우주시공의 온갖 神들 중 하나로 포섭하여 그 1神의 과거 자가 모순 당책을 해원상생으로 止揚케한 음양재조정을

한 것이다.

이에서 神과 人 나름의 음양을 비롯하여, 인간간의 음양등 만물의 음양을 재조정하여 5만년 仙境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이 증산 대순사상의 어마어마한 구상구도(構相構圖)는 도덕경의 우주시공과 음양진리에 비쳐서는 결코 異常할 것이 아니다. 다만 증산만이 19세기 중엽에 사람 몸으로 出現하기 前에 地上天啓塔에 강림하여 天下大巡으로 과거사를 점검하고 現代 장래를 豫見하여 5萬년 仙境일 만큼 세계史를 구제했다는 것이 된다. 즉 새 次元창조격 그러한 것이 된다.

증산이 「道の 포태, 佛의 양생, 儒의 범절, 관왕」으로 천지공사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노자(老子)가 도덕경에서 자연 도법(道法)이 우주시공의 자연진리이며 無에서 有의 1,2(음양), 3(음양합덕), 만물발생, 沖氣而和하는 바임을 지적한 것임을 증산이 玄武經에서 거듭거듭 확인한 것이다. 道가 無極에서 太極 1을 발생하여 음양 兩儀인 ●로 융통케하고 3이 되는 변증법적 종합 발전을 하여서는 만물이 발생하여 沖氣而和하는 진전인 것이다. 그것이 음양 만사가 氣에서 沖하면서도 실은 서로 和가 되는 우주시공진리인 理의 필연이라는 것이다.

증산이 그것을 불교의 「양생」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어머니의 배속에 포태되어 사람 몸으로 出生 成人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양생(養生)아님이 없음을 불교의 자비(慈悲)진리에 부친 것이다. 사실 증산은 스스로를 醫統이라 하고 죽은 사람을 되살리기도 하였었다.

4. 인도주의와 현실 中庸性

증산은 道·佛을 유교의 인도주의 범절, 관왕이게끔하여, 그나름 현실론적, 中庸性이게끔 이끌었다. 아무리 道·佛의 진리 자연과 그 양생이기는 하지만 이를 현실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인간이다. 즉 유교의 인도주의로 이끌어 그 범절(질서)안정과 成人 관왕(冠旺)인 가정·사회·경제·국가·국제에도 걸치는 왕성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유교라야 할 것이 된 것이다.

즉 道·佛의 진리·양생을 成人의 범절·관왕으로 현실 부합이게끔 하는 「中庸性」을 유교에 부처 神人을 포함한 음양 착잡, 충격 아님이 없는 세계사 현실을 변증법적 종합인 「中庸善」으로 이끌 오직 유교 뿐만임을 확인한 것이다. 실은 도·불도 그러한 원리인 특히 불교의 자비 실천인 것이다.

사실 有史이래의 東西 세계 관계가 그러한 자취였음을 이미 살피기도 한 바 그것이 어디까지나 「人尊사상임을 크게 주목할 일이다. 동서 세계 모든 것이 음양 관계 아님이 없는 것을 함덕이게끔 이끈 도(道)의 포태를 불교의 「양생」으로 유교 인도주의 성공이게끔 한 천지공사인 것이다.

5. 불교 不二法門과 至氣주의 과학성

그것이 얼마나 지극한 人尊주의와 그 불교 不二법문인 만큼의 진리이며 더구나 그 至氣주의적 과학성 適中으로서의 오늘날 人類大문제 원만해결인가를 玄武經이 보여준다.

불교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진체(眞諦)와 속체(俗諦)가 둘이 아니라는 大乘 不二法門을 말한다. 이야말로 서양 기독교 세계의 神人 절대구별과 「原罪」개념, 神人 자가모순당착 및 兩劍諦 분열·투쟁들을 말끔히 씻어 우주시공 진리인 불교 불법에 귀착시킨 대순사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貪·嗔·痴인 속체(俗諦)도 실은 부처님 같은 청정무구(淸淨無垢)와 둘이 아닌 진리 자체이므로 취사선택(取捨選擇)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하였다. 이것이 大乘인 것으로 요컨대 부딪치는 대로 가릴 것 없는 자비구제를 하라는 것이다.

眞理란 有垢 無垢가 있다. 사실 論理 合理性이기 때문이다.

生佛不二, 眞法不二인 그러한 것으로 神과 인간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금단의 과일을 만들어 따먹지 말라 하였지만 그렇기로 그것이 탐(貪)스럽고 맛(味)있게 보이어 더구나 어린 탓, 호기심 발동으로 따먹은 것이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런 것을 만든 神에게 책임이 있고 기왕 따먹어 감각의 만족을 얻었기로 生死의 고통을 겪는 것은 神의 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감

각 자체 진리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왜 기독교 一神은 스스로의 모습과 호흡 불어 넣음으로까지 인간시조 한쌍 남녀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여 축복 약속까지 하면서도 부질없는 「금단의 과일」 작성으로 戒命 위반, 原罪 성립 이게끔 한것일까. 아담, 헤와를 시련했다 할지라도 실은 神자신의 자신에 대한 시련인 것이다. 그 모두가 실패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더구나 음양 아님이 없는 천지만물을, 神의 말대로 창조하여 보기에 기뻐했다는 것이다.

증산이 그 창세기 기록 담긴 聖書를 불살아 버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한가지 쐬이 自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의 음양은 우주시공 진리 자체적으로 음양 대대원리(待對原理)의 산물인 것이다. 서로가 기다리다더시 숨쳐 서로간의 長短점을 보완 보충하여 편파없는 참된 덕(德) 완성이게끔 하는 자연법 진리 구조인 것이다.

이른바 음양 변증법적 진전인 그러한 종합 해결인 것으로 이를 기독교 一神은 자기자신 것으로 탐(貪)낸 의욕(意欲)으로 그의 말대로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 시조 한쌍 남녀 창조로 神의 모습, 호흡불어 넣음으로까지 축복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따먹지 말라는 戒命으로 神자신의 자기시련을 아담, 헤와에게 행하여 실패한 것이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구태어 살아 행복했다 할 것도 없는 無에서 有가 발생한 「眞空妙有」인 삼라만상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原始返本」인 「有卽無, 無卽有」인 生·老·病·死 윤회인 것으로 나면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生하는 것이다.

神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부활했다는 말도 있는 등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라 하겠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神이건 인간이건 결국은 탐(貪)내는 탐욕심(貪欲心) 문제인 것이다. 탐내면 무명삼독(貪, 嗔, 痴)이 되기 마련이고 그것을 떨쳐 없애어 털끝만큼도 그런 것이 없는 청정무구(淸淨無垢)가 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부처(佛)가 되는 것이다.(금강경) 즉 生佛不二와 眞俗不二 與否는 우리들 「마음」 자체에 매언 일로서 七佛통계(通偈)인 「諸惡莫俗,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가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증산 대순사상의 道佛 포태, 양생이 불교의 生佛不二, 眞俗不二인 至氣주의 과학성으로까지 유교의 범절, 관왕에 있대어지는 侍天主呪 거듭 거듭 다짐에 접한다. 「侍天主, 造化定, 万事知, 永世不忘, 至氣今至, 願爲大降」 21자 呪文인 것으로 「侍天主」가 도교의 九天上帝(불교에도 그러한 것이 있음)를 모신다는 증산 자신의 지극한 겸사(謙辭)임을 君師父에 대한 그분의 泣祝問安과 聰明 震默大師라하여 享員…(姜飭山)의 南無阿彌陀佛에 대한 大享祭典 설정 大書特筆 祈願이 증명한다.

즉 증산 자신이 九天上帝가 되어 造化는 이미 決定되어 그것을 부처님처럼 万事知하여 永世不忘이기도 하는바 그 지극한 氣가 이제 이르렀으니 원컨대 크게 내리어 달라는 祈願인 것이다. 이에서 천지공사 도본(圖本)을 작성하고 左右書 그분 앉은 北向자리에서 東西를 겨눈 心祝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東西남북 제神들 그야말로 우주시공 온갖 神明을 사령하고 자진 호응케도 하는 등 雨順風和와 寒暑 조절로 民生을 구제하고 위국을 모면케 하는 등 諸神으로 하여금 그분 천지공사를 보필케한 신통자재를 행한 것이다.

그것이 도교 자연법을 불교의 「양생」 万事知인 우주시공 진리로 해원상생케하여 유교범절, 관왕에 부친 세계史 구제이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여 그 侍天主呪가 도교 자연법을 불교의 「양생」 万事知로 죽은 자도 살린 醫統실천으로 至氣주의 과학성인 세계사 구제 천지공사를 한 것이다.

6. 파사현정과 신기원적 창조

대순 사상은 세계사를 파사현정(破邪顯正)인 새로운 삶으로 창조한 신기원을 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 生佛不二, 眞俗不二, 大乘 불교 실천인 석가모니불 당시의 거사(居士) 유마혈(維摩訶)의 직심도량(直心道場) 실천을 20세기 벽두에 증산이 행한 우주시공 대 진리실천임은 다음과

같다

「유마혈」은 病을 가탁하여 제 보살들을 問病차 오게끔 하였다. 「세상이 病들었기로 나도 病들었다」한 問答에 이어 제보살들의 不二法問 이게끔 하고 문수보살이 그 종합 법문으로 유마혈에게 반문하자 유마혈은 묵언(默言)으로 답하였다. 이 묵언이 천지를 뒤흔든 不二법문 답이었던 것으로 그 유마혈은 거리에 나서 파사현정한 「직심도량」(直心道場) 실천을 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직심도량은 「마음」의 正直인 진리 바탕이며 이를 실천하는 파사현정인 것이다. 증산이 「마음을 속이지 말라」한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사현정은 마음의 탐,진,치 무명3독을 타파 하므로써 마음의 청정무구 본 바탕을 드러내는 「마음」의 도량(道場) 실천인 것이다.

「無住相보시」 보살 大行이 거기서 자을되는 우주시공 大불가사의 진리인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유마혈은 그 공덕을 우주시공 무량겁 중의 한 불국토보살들을 오게끔 하여 불가사의 대성찬(盛饌)으로 대접 하였다. 그 순간내왕 등 신통자재는 형언을 絶하려니와 증산은 그것을 20세기 벽두에 5萬年仙境이라는 음양합덕 실은 불국토 다짐으로 해원상생케 하였다. 그 사실 여부는 오늘날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로되 증산이 5만년선경을 두고 증언한 것이 오늘날에서도 일부 트이고 있음은 부인 못할 일이다. 베어 먹은 곡초(穀草) 뿌리에서 새 곡초가 절로 소생하여 종전 비가 아닌 거대한 수확이 되어,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도 먹고 남을 풍요가 되리라는 것이 오늘날에서는 부분현상으로서나마 실현되고 있는 기계생산 홍수같은 소파짐이 되고 있다. 문고리를 황금이게끔 하는 것에 비교되는 일부 현상이 실제로 없는 것도 아니다. 신통자재 별의 별 못한 일이 없는 현상이 오늘날에 이미 일부 트이고 있으면서도 노사문제에 굶어 죽는 大量현상이 오늘날에도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만 착하면 그 모두가 원만 해결되고도 남을 여유 풍부성에서 이기도 하다.

이를 증산은 20세기초에 시골, 도시, 서울에 내왕하여 직심도량 파사현정을 하였고 유마혈은 석가모니불 당대에 거리에 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유마경이 「불설유마혈 불가사의 해탈 법문경」이고 증산의 玄武經 眞作이고 보니 典經이 전하는 제자들의 증산 言行 수록과도 함께 그것이 사실임을 의

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석가모니불은 그야말로 우주시공 온갖 天體들 윤회를 발생과정인 5행상극 아닌 상생(증산도 그러함)과 천체마다 중생이 있는 神의 존재 등 貪慾과 의식유동 있을 수 있는 온갖 유형 분석을 하였다. 95종이나 되는 사견(邪見)이 있다고 제자 아난(阿難)과의 문답을 통한 과학적 분석으로 부처님만이 볼 수 있는 우주 시공 삼라만상 實相을 드러내어, 아난으로 하여금 견성성불(見性成佛)케 하였다. (楞嚴經), 法華經에서는 우주시공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大慈大悲인 진리의 비(法雨)로 生成化育하는 불국토임을 온갖 비유와 實相 드러 내므로 증명하셨다.

증산 대순사상이 바로 부처님의 법화경 소식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7. 결어

이상 대순 음양합덕의 현대적 意義를 오늘날의 實相과 거기에 합축되는 원리 분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관한 전망어린 풀이를 하였다. 요컨대 「마음」의 탐욕(貪慾)에 얽히는 무명3독이고 그나름 나중심 아상(我相)과 나만이 옳다는 법상(法相) 얽힘인 음양 착잡, 전도(轉倒), 충격, 갈등을 예사처럼 행하는 우리들 중생노름인 것이다. 「마음」 내키는데로 보고 듣고 또 마음 내키는데로 더침하여 행하기도 하는 갈수록의 중생자가모순당착임을 부처님께서 깨우쳤었다. 중생의 1종인 神도 그러하여 그나름 神·人 음양 착잡, 전도, 분열, 충격등 노자문제가 오늘날의 위기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이 「마음」의 門을 出入하는 神明들이라 한 것은, 불교에서는 善한 마음을 가지면 부처가 되고, 그러다가도 惡한 마음을 가지면 당장에 惡마가 된다 하였다. 「마음 먹기대로」 變身變모하는 인간모습들인 것이다. 부처님과 예수는 「항마성불」(降魔成佛)하였다. 「크리스트」라는 「구세주」 이름인 예수이지만 그는 19세에서 30세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遍歷(遍歷)하여 불교

를 익히고 닦았다는 서양학자 저서와 방송이기도 하였다. 예수가 어린아이 처럼 되라고 한 것이 道佛 無慾원리에 되돌아가는 「原始返本」을 뜻한다. 그러나 「無卽有, 有卽無」인 「眞空妙有」를 말한 것은 오직 불교만에 것이다. 이를테면 털끝만큼도 욕심이 없는 마음의 본바탕 空에서 삼라만상의 實相이 드러나는 妙有인 것이다. 그 眞空 妙有를 깨치는 万事知一 우주 時空 진리 실천이 바로 生佛不二, 眞俗不二인 것이다. 영원의 복락 무궁무진인 平和 安定 自律(涅槃)일 佛國土이며, 이를 「平常心이 是道」라고도 한다. 즉 평등이 바로 진리의 기준인 것으로 기독교 一神은 의욕적인 我相, 法相으로 그것을 그린 셈이 된다. 慈悲普捨는 부처님께서 부처님 자신과 다름 없는 중생이면서도 貪心으로 그르트리 苦海를 윤회하는 것을 크게 슬퍼하여 부처와 다름 없는 영원의 복락 평화 안정으로 이끈 大慈大悲의 사랑인 것이다. 기독교의 神人구별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구조성질부터가 다른 것으로 의욕이 아니고 진리로서의 필연이자 당위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현실이 바로 佛國土인 욕계(欲界)중생 인간의 苦海에 있어 한반도 민족사가 과거에서도 경험한바 민족 평화통일로 세계史大使命을 수행해야 할 것이 된다. 「破邪顯正」이 그 中心 과제인 것으로 이것 없이는 徒善이 도리어 惡을 助長하는 세계史 구조이기 때문이다. 증산이 그점을 강조한 玄武經의 소식이기도 한바 즉 「直心道場」을 그르트리서는 안될 것이 된다.

【참 고 문 헌】

이미 제출한 두번째 글 말미에 주요 참고문헌들을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두가지만을 더 첨하여

- (1) 독일인 Georg Grimm, 「Budde und Christus」(1928)
- (2) 프랑스인 「자크, 모느」의 「偶然과 必然」(1974)을 소개한다.

그외에 拙稿, (高大在任) 「丹露敬文論拾集」수록인 「脫이데올로기 實利主義論」과 「이데올로기 批判 教育론」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보다 자세한 東西政治思想史 맥락체계 實相 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